

勞 使 安 定 對 策

'91. 2. 26.

勞 動 部

目 次

I. 最近勞使關係 現況

II. 重點 推進對策

1. 勞使關係 安定을 위한 社會的 合意 形成
2. 勞使關係 遵法秩序 確立
3. 紛糾豫防과 迅速 調整
4. 合理的 賃金交涉 指導

I. 最近 勞使關係 現況

○ '91. 2. 25. 現在 勞使紛糾는 31건으로 前年(38건)對比 19% 減少하는 등 '90年度에 造成되기 시작한 勞使關係 安定基調가 금년에도 繼續되고 있으나.

－ 勞使紛糾의 선행지표인 爭議發生申告件數가 크게 증가하여 不安要因 潛在

※ '91. 2. 25. 現在 107건으로 '90. 72건 對比 49% 증가

○ 다행히, 그동안 團體交渉 過程에서 難航을 거듭하던 “대우조선”이 勞使兩側의 자제와 양보로 早期妥結 되고

－ 春季 賃鬪의 주요변수였던 “大企業勞組 連帶會議”가 과격 노동운동에 대한 組合員 대다수의 外面, 國民的 批判輿論, 政府의 強力 對應 등으로 그 활동과 조직세가 위축, 합리적 노선으로의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어 向後 勞使關係安定에 肯定的 要因으로 作用 展望

※ 당초 連帶會議 加入 16개 업체중 浦鐵, 現代重電機가 脫退 하였으며, 2. 21. 시도 하였던 連帶罷業도 3개업체만이 消極的으로 呼應하는 등 사실상 失敗에 그침

○ 그러나 賃金交渉을 둘러싸고 韓國勞總은 17.5%(全勞協 : 22.2%) 引上을 要求하고 있는데 비해

－ 使用者側은 7%범위내 引上을 제시하고 있어 妥結에 어려움이 예상됨.

■ 따라서 本格的인 賃金交渉 時期인 4-5월을 對備, 産業平和를 위한 『社會的 合意』를 통해 各 經濟 主體別로 역할을 分擔하여

－ 安定基調下에 賃金交渉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각적 對應策을 마련, 推進하겠음.

II. 重點 推進對策

1. 勞使關係 安定을 위한 社會的 合意 形成

- 社會的 合意 形成을 위한 協議會를 開催(3월중)
- 汎 政府 次元에서 推進課題 選定 등 細部推進方案 確定(總理室, 企劃院, 內務部, 商工部, 勞動部, 公報處 등)
- 經濟主體別 細部實踐 綱領 採擇 推進
 - － 企 業：社內 福祉增進,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健全企業 倫理 確立 등 社會的 責任 實踐('90. 5. 45대 그룹 결의 확산)
 - － 勤 勞 者：賃金自制, 生産性 向上 등 경제적 어려움 극복 동참
 - － 政 府：物價安定, 세제개편, 근로자 주택건설, 公共福祉 投資 擴充 등 實質所得 補填 施策 강구
- 國民的 共感帶 形成 등 霧圍氣 成熟後 全國的으로 擴散
 - － 中央勞使協議機構 활용
 - － 勞使教育시 高 통분담과 勞使協力 필요성 重點 教育 (년 62천명중 15천명 조기실시)
 - － 地域別 勞·使·政 세미나 등 對話의 廣場 마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태백, 광주, 대전, 마산·창원)
 - － 노동뉴스 발간(매주 2만부), TV토론 등 매스컴活用 積極 弘報

2. 勞使關係 遵法秩序 確立

■ 合法的이고 정당한 勞動運動은 적극 보호하되 産業現場의 不法行爲는 勞使를 不問하고 강력히 依法 措置

※ 勞動法을 지키지 않고는 企業經營이나 勞動運動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고히 정착

－ 대우조선 파업지원과 관련, 大企業勞組連帶會議 대표자 7명을 제3자 개입으로 구속 (2. 12.)

－ 노조탈퇴에 개입한 현대건설 사용자측 4명을 부당노동행위로 입건, 검찰 송치 (2. 22.)

○ 關係機關 共助體制 強化로 大企業 連帶會議 등 法外 勞動團體와 全勞協 등 急進勞動勢力 繼續嚴斷(내무부, 법무부, 상공부 등 협조)

－ 紛糾를 주동하거나 배후조종하는 核心人物은 司法 措置하고 재야 문제 노동상담소 등의 第3者 介入行爲를 強力 遮斷

－ 不法爭議·連帶罷業 및 勞學連繫鬭爭企圖 源泉 封鎖

－ 주변 同調勢力을 制度圈 內로 수렴하기 위한 지속적 啓導活動 병행

○ 勞動組合의 不法的 政治 參與活動 規制

－ 노동조합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등 關係法上 禁止事項 積極 啓導

－ 地自制 選舉時 不法的 政治活動을 嚴斷

※ 특정 정당 및 특정인 당선 지지행위, 정치자금 징수행위 및 정치자금 유용행위 등

○ 使用者의 不當勞動行爲 豫防 및 救濟 強化

－ 勞組 新規設立 등 不當勞動行爲 우려업체 集中 指導

－ 勞動委員會 救濟命令의 신속한 이행촉구, 不履行時 즉시 司法 措置

3. 紛糾豫防과 迅速 調整

○ 紛糾 脆弱業體 重點 管理

- 최근 3-4년간 紛糾 多發業體, 急進勞動勢力과 連繫等 紛糾 脆弱事業場 420개소 대상
- 週 1회이상 지도점검 실시, 紛糾要因 事前 解消

○ 汎 政府的 紛糾 收拾體制 確立

- 中央次元에서는 11개 關係部處 참여, 「産業平和 對策委員會」 활동을 강화
- 地域別로는 有關機關 對策會議 운영, 地域 勞使問題 適期 解決

○ 紛糾 早期 收拾으로 産業被害 最小化

- 大規模, 惡性紛糾 현장에 「勞使紛糾 收拾機動班」을 派遣·早期收拾 (5개반 55명)
※ 대우조선 파업시 거제현장에 기동반 파견, 조기타결에 기여
- 勞動委員會의 斡旋, 調整 절차 등 신속 진행
- 公益事業 紛糾時 「職權仲裁」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저히 國民經濟에 危害한 大規模 紛糾는 「緊急調整權」발동도 고려

○ 合理的 勞使慣行의 定着

- 勞使間 爭點事項에 대한 명백한 基準 設定 및 關聯 準則 補完
- 건전 勞組運營 指導를 위한 勞組 業務調査 強化 및 規約 審査 철저

4. 合理的 賃金交渉 指導

■ 公企業, 大企業 등 先導部門의 率先垂範으로 賃金安定 霧圍氣를 확산시켜 賃金과 物價의 善循環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汎政府的 指導活動을 전개

－ 주요 도시 賃金交渉 討論會 개최 및 賃金關聯 各種 指標 등 참고 자료 제공등으로 圓만한 교섭 支援

○ 先導部門 重點指導

－ 相對的 高賃金企業 등 300개소를 선정하여 集中指導(기획원, 상공부, 건설부 등 협조)

先 導 部 門	指 導 方 向
· 政府投資·出損機關(64개)	－ '91 豫算 範圍內 (5-7%) 早期妥結, 효과파급
· 30大 그룹 主力企業(90개)	－ 賃金 高率引上 自制, 각종 수당의 신설 등 變칙적 인상 억제
· 業種·地域別 先導企業 (146개)	－ 公共部門의 조정추세에 따라 安定 妥結

○ 勤勞者 100人 以上 全事業場(6,590개소) 賃金交渉 적극 啓導

－ 部門間 賃金隔差 緩和를 위해 業種, 規模別로 구분하여 指導

· 서비스업종과 대기업 등 高賃金 分野는 임금을 최대한 자제

· 製造業·中小企業 등은 競爭力維持 범위내에서 適正 水準으로 인상

－ 生産性 向上分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 등 사후 成果配分制 活用을 권장

○ 賃金體系의 單純化, 年俸制 導入 등 賃金制度 전반에 걸친 中·長期的 制度 改善 方案을 檢討

[參 考]

連帶를 위한 大企業勞動組合會議(약칭 : 連帶會議)現況

事業體名	所在地	근로자수 (조합원수)	組合長	團體協約 滿了日	賃金協約 滿了日	비고
14개 노조		93,868 (71,722)				
대우조선	거제	11,922 (9,418)	백순환	90.11. 3	91. 2.28	
대우자동차	인천	17,200 (12,502)	이은구	91. 7.31	91. 3.31	
아세아자동차	광주	5,503 (3,800)	김종식	92.12.31	91. 3.31	
금호타이어	광주	3,100 (2,700)	손종규	92. 3.30	91. 4.30	
현대중공업	울산	21,400 (17,800)	이영현 (직대우기하)	90. 5.31	91. 5.31	※
현대정공	울산	2,500 (2,000)	손봉현	92. 7. 5	91. 5.31	
울산공장	창원	2,846 (1,943)	이경수	92. 2.19	91. 6.19	※
현대정공 창원공장 (주) 통일	창원	4,800 (2,900)	진영규	91. 2.28	91. 2.28	※
한진중공업	부산	3,072 (2,212)	박창수	91. 3.31	91. 2.28	※
대우정밀	양산	2,200 (1,550)	윤명원	90. 8. 6	91. 1.31	※
태평양화학	수원	4,400 (3,100)	이수홍	91. 5. 7	91. 2.28	※
서울지하철 공사	서울	8,100 (6,656)	직대김선구	89.11.17	89.12.31	※
(주)풍산금속	안강 (포항)	4,025 (3,391)	이철규	91. 3.31	91. 3.31	정운광
기아기공	창원	2,800 (1,750)	장초	90. 4. 7	91. 3.31	※

▲ 당초 16개 노조중 2개소 탈퇴

포항종합제철 : 91.2.7 노사공동발전모색 및 포철적 노동운동의 구현사유
 현대 중전기 : 90.12.10 연대투쟁 반대, 조합원 복지향상 주력사유

※ 전노협 가입노조